한국 아동의 부정사 획득

The Acquisition of Negatives in Five Korean Children

이 순 형*
Yi, Soon Hyung

A B S T R A C T

This study investigated Korean children's early acquisition of negatives and focused on four research questions: 1) processing of negative variations; 2) the nature of negatives when negatives are completely acquired in Korean (in which meaning and form are matched in one to one mapping); 3) the validity of Bellugi's negative acquisition model in Korean; and 4) the cause of child's erroneous sentence production: limited ability or regularity in children's cognition.

The language data of the five subjects (age span; 1.1 - 3.11)were collected by their parents in the natural setting of the home.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pivot form, <X + negative> was processed in many ways from a simple to a complicated form, such as <X + N,Y> <(x+x') + N> <Y,X + N> <(x+x') + N,Y> <(x+x') N,(y+y')>. It appeared that the children used a simple negative format to reach a one-step advanced negative format. 2) Korean negatives are divided into range of negation in the negative sentence (part or whole), strength of negation (absolute or general), functions of meaning (negation, absences, refusal, prohibition, impossibility). All five children acquired negative sentences in all functions and the complete range after 3 years of age. 3) In spite of the differences in age level, Bellugi's four stage model was in evidence; that is, Korean children's negative acquisition was almost identical with Bellugi's four stage model in deep structure. 4) Analyses of children's error sentences showed that the sentences with errors were made not because of the children's limitation in cognitive ability but because of the strict application of regurality of

---

감사의 말씀 : 소중한 자료를 공개해 주신 조명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덕성여자대학 가정학과 조교수

rules from the original grammars. Consequently, the children produced negative sentences using two rules: the rule of additive complexity (from simple to complex) and the rule of division (from one to several).

Ⅰ. 문 제 제 기

부정(negation)은 명백히 또는 불분명하더라도 어떠한 사실에 대한 부정적 인지를 뜻한다. 부정을 전제된 사실에 대한 부정적 인지라고 정의할 때, 부정은 그 사상(event)에 대한 현소한 의미의 부정과 불가능, 부재, 거부, 금지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동의 인지발달 측면에서 부정적 인지의 명백한 출현은 Piaget의 대상항상성 실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생 후 6개월이 된 유아는 낯선 사람을 대했을 때, 평소에 그와 익숙한 사람이 아님을 곧 알아내고, 울음보를 터뜨려 새로운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하는데 이와같은 사실은 막연하게나마 아동이 부정개념의 싹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후에 이 싹이 말로써 표현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보고있던 물체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어도 그 물체의 존재를 여전히 알고 있으며, 곧 다시 그의 시야에 나타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이 사실은 아동의 사물의 부정과 부재를 생후 초기에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언어산출이 낯선이 공포나 대상항상성 개념획득을 보이는 연령보다 늦으므로, 어린이의 언어자료를 통해서, 어린이의 부정적 인지의 출현을 살펴보는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미약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부정적 인지내용의 표현방법과 아울러 아동이 획득한 문법적 규칙을 통해서 그의 부정적 인지사실을 어떻게 표출하는가, 즉 부정적 의미내용과 부정사를 연결시켜 산출하는 능력의 발달을 살펴보는 연구는,언어를 통해서 어린이가 인지내용을 의도한 바대로 어떻게 표출하는가를 밝혀볼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발달양상이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비교문화적 견해에서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유아의 인지발달 현상이 문화권에 관계없이 보편적이라는 견해를 따를 때조차도 아동의 인지를 담아서 표현하는 언어의 내용과 규칙이 언어마다 전혀 다르다는 면에서 부정사 획득 연구는 언어발달의 비교연구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Ⅱ. 선 행 연 구

아동의 부정사 획득에 관해서 보고된 연구(Bellugi, 1967 ; Bloom, 1970 ; Bowerman, 1973, 1975 ; McNeill & McNeill, 1968)중에 영어의 부정사 획득을 다룬 두 편의 연구(Bellugi, 1967 ; Bloom, 1970)와 일본아동의 부정사 획득에 관한 연구(McNeill & McNeill, 1968)를 제외하면, 대부분 언어간 비교연구(Bowerman, 1973, 1975)이거나, 또는 이민온 아동의 제이모국어인 영어의 부정사 획득(Kellen-Cohen et al, 1979)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대화 중 자발적으로 산출된 아동의 언어자료를 녹음하거나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언어자료를 가지고, 주로 아동의 부정사 획득에 촛점을 두고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들이 비록 성인들과의 대화이지마는, 성인의 언어자료 자체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최근에 시도되고 있어서 일관된 연구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성인의 언어자료를 제외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대부분 아동의 언어자료를 대체로 의미의 기능적 역할에 따라서 분류하고, 그 부정사의 발달을 다른 부정사의 발달과 비교하는 방법에 의해서 분석된 부정사의 상대적

획득 시기를 비교 연구되어 왔고 동시에 유아가 표현한 구문의 문장 차이에 관해서 연구되어 왔다.

그런데 초기 부정사 획득에 관한 연구는 두 편의 논문(Klima & Bellugi, 1966 ; Bloom, 1970)이 시발점으로서, 아동의 부정사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 두 개의 논점을 제기한다.

하나는 성인언어에서 보이는 다양한 부정사를 언제, 어떻게 획득하는가(Bellugi, 1966, 1967, 1971 ; Slobin, 1971)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이 표상한 의미표지중에 무엇부터 산출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Bloom, 1970). 전자는 부정사가 다양한 문법표지를 획득하는 표면적 양상에 후자는 어떤 부정사든 상관없이 그 부정사의 의미표지가 어떤 기능부터 획득되는가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1) 부정적 문법표지의 획득

Bellugi는 Brown의 세 자녀로부터 수집한 언어자료를 재분석하여, 부정사 사용이 몇 단계로 나뉘어 변화됨을 보고하였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부정문장의 확장은 표 1과 같이 성인언어의 부정사 발달을 현재를 기점으로 하여 거꾸로 돌리는 것과 유사하다. 즉 단계가 진행될수록 부정문장의 길이도 길어지고, 다양한 부정사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 1. 단계별 부정구문의 예문(**from Klima and Bellugi, 1966**)

1.	no singing song
	no fall
	no mitten
2.	no pinch me.
	book say no.
	don't bite me yet.
	don't leave me.
3.	Paul can't have one.
	We can't make another broom.
	I didn't did it.
	I don't want cover on it.
	I am not a doctor.
	I isn't … I not sad.

구체적으로, 부정사의 단계별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초기단계에서 아동의 부정사 산출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첫번째 특징은 아동이 산출한 부정문의 길이가 그 당시 산출한 다른 형태의 문장보다도 대체로 더 짧다는 것이다.

두번째 특징은 초기에 어린이는 no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부정사를 부정사의 의미기능에 상관없이 거부, 금지, 부정 등 다양하게 어느 문맥에서나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초기 부정사 산출은 (주어+no+술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Bloom, 1970). Bellugi는 2세 전후의 아동들이 유아적인

미완성 문장에다가 no를 접사로서 첨가시켜서 부정문을 산출한다고 주장했으며, Slobin(1970) 도 그의 주장을 재차 확인하고, "No mitten, No Sit there, No play that."등과 같은 예문을 들었다. 유아는 언어획득 초기에, <주축어+단어>의 틀에다 단어를 변형시켜서 유사한 문장을 말하듯이 (Braine, 1976), 부정사에다 단어를 이어서 <주축어+단어> 형태의 부정문을 산출한다.

세번째 특징은, 2세경까지 어린이의 부정사 산출이 상당한 수준에 까지 분화되는 발달양상을 단계 모델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Slobin(1971)은 Bellugi의 자료를 가지고, 부정문의 변형발달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단계에서 어린이는 <주축부정어+단어> 형태의 부정문을 산출하는 유아는 위에서 지적한 두번째 특징을 보이는데, 이 때 어린이의 부정사 사용이 문장구조상으로도 성인의 문장과 다르며, 비록 동일한 문장구조라고 하더라도, 억양과 휴지점 등이 성인문장과 다르다고 한다.

단계 1로부터 6개월 후인 단계 2에서는, 아동의 언어자료에서 'can't', 'don't', 'not' 등의 부정사가 발견되는데 이와같은 부정사는 부정의 의미로는 사용되었어도 긍정문에는 쓰여지지 않는 사실로 보아 이 단계에서 부정과 긍정의 구분이 명확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부정 명령문도 발견된다. 이와 같은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류문장이 보이며, 아직 이중부정문은 산출되지 않는다.

단계 3에서는 단계 1에서 no나 not을 주축어인 접사로 첨가하던 경향은 사라지고, 몇몇 문장은 성인의 언어문장과 완전히 일치한다. 부정문을 만드는 접사로서 can이나 do가 사용되며 이들을 긍정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사가 오면서, 변형되어야할 어절이 바뀌지 못하는 오류도 보인다.

You don't want some sugar.

I don't see something.

단계 4에서는 Adam의 언어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이 단계에서는 단계 3에서 출현된 부정사의 특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중부정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부정문에 사용되는 부정대명사로서 nothing, nowhere 등이 나타난다. 단한번 뿐이기는 하지만, 삼중부정문이 오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2) 부정적 의미표지의 획득

초기에 유아가 산출한 부정문을 문맥(context)에 따라서 관찰하다 보면, 유아는 사물의 부재[*1]를 처음으로 부정사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며, 두번째로는 성인이 제안한 바를 거부하는 의미기능, 그 다음으로 명제의 부정기능에 해당되는 부정사를 산출했다 (Bloom, 1971). 이 사실은 후에 Nicky가 19개월에 이르러서 no를 산출했으며 우유가 없다, 아빠가 없다의 문맥에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Greenfield & Nelson, 1976).

그러나 일본아동의 언어자료에서는 부정사 획득 순서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한 명의 일본 아동(27개월 부터 33개월)을 대상으로 네 가지 부정 의미기능을 각각 나타내는 부정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한 연구(McNeill, 1973)에 따르면, 일본 아동은 부재에 해당하는 부정사 nai 보다는 거절이나 거부의미에 해당하는 iya를 더 일찌기 획득한다고 보고하였다(Clancy, 1982 ; Ito, 1981 ; McNeill, 1973). 두 지역에서 보고된 이러한 차이점은, 문화권에 따른 언어구조상의 차이인

---

* 주 1. 不在(non-existence)

지, 아니면 연구방법이나 기타 언어자료 자체가 지닌 한계 때문에 빚어진 차이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3) 부정문 산출과 인지

최근에 들어서 아동언어를 더욱 중요시하는 이유는 연령별 아동의 언어발달 특징을 밝히려는 표면적 목적과 더불어 단순한 아동언어의 산출 및 이해과정을 통해서, 언어라는 의미의 표상매체와 인지라는 고도의 인간 정신작용의 관계를 밝혀보자는 심층적 의도에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언어산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능한한 단순한 조작에 의한 실험을 시도하곤 한다(Greenfield, P.M. & Zukow, P.G, 1973)

아동의 부정문 산출에서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아동발달의 초기에 부정문 산출의 특징으로서 부정문의 길이가 비교적 짧다는 것이다. 즉 2어문이나 3어문장을 산출하는 아동이 산출한 부정문의 길이는 그 문장의 길이보다 더 짧은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와 비슷한 현상은 wh로 시작되는 의문문의 산출에서도 보여진다고 한다. 즉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잘 하는 아동도 일단 wh로 시작되는 의문문을 산출할 때에는 주어와 보조사가 도치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아동의 능력에는 한 번에 하나의 조작만을 할 수 있도록 인지적 부하량(cognitive load)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Clark, E., 1977)는 가설을 상정한다.

이와 같이 인지적으로 부하량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어린이가 산출할 수 있는 문장구조의 난이도가 결정된다는 인지적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 가설에 따르면, 부정문 산출에 있어서 부정의미를 나타내는 부정보조사 don't, can't 다음에 의문문에 있던 술어와 주어가 다시 주어, 술어 순으로 바뀌어야 할 때에도 어린이가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부정문에서는 바뀌어야하는 some, any, 그리고 no one, no where, nothing 등 영어 문화권에서 부정의미에 따른 문장의 용어변형에도 오류를 보일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자료에서는 의미기능에 따라 각각의 부정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27-31개월)은 iya가 적절한 문맥에 40%나 nai를 잘못쓰며, iya대신에 nai를 오용하곤 하였다(McNeill & McNeill, 1973 ; Fujiwara, 1977)고 하여 초기 부정사 산출에 오류문이 많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어린이의 오류문 분석은 오류문의 산출에서 일관성있게 보여지는 규칙을 찾아내어 그 규칙을 통해서 아동의 인지적 특성과 인지의 한계를 밝히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시도가 된다. 그러나 어린이는 어떤 문장에서 어떤 오류를 왜 보이는지,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부정문은 초기에 획득한 기존 문장구조의 틀에다가, 부정사를 대입시켜서 (X+부정사)의 형식으로 산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과정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no나 not과 같이 부정사가 한정된 문화권에서, 어린이의 부정사 기능이 점차 분화되어 나간다면, 부정사의 의미기능별로 부정사가 분화된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그러한 부정사의 분화는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가? 그때 실제로 가장 일찌기 출현하는 부정사가 부재기능 또는 거부기능의 부정사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Bellugi나 Slobin의 단계 모델에 우리말의 부정사 산출을 조명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볼 수 있을까? 끝으로, 어린이들이 산출하는 오류문은 단순히 어린이의 제한된 인지적 능력에 따른 오류인가(Clark, 1977), 아니면 어린이의 언어산출 규칙에 따른 구조적인 오류인가(이순형 유안진, 1982)? 후자의 경우라면, 그 규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아직 부정문 획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는 한국아동의 언어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밝혀 보려고 한다.

연구문제 Ⅰ. (X+부정사) 형태의 부정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획득되는가?

연구문제 Ⅱ. 부정사가 의미기능별로 분화된 언어권에서, 부정사는 의미기능별로 언제, 어떻게 분화되어 획득되는가?

가장 최초로 획득되는 부정사는 무슨 기능인가?

연구문제 Ⅲ. 부정사 획득의 단계별 모델이 타당한가?

연구문제 Ⅳ. 부정사의 오류문은 인지적 능력의 제한 때문인가? 아니면 인지적 규칙성 때문인가?

Ⅲ. 자료의 성격

본 연구에서 분석된 언어자료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류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어린이 5명이 자연상황에서 산출한 말을 모은 것이다. 언어자료 수집 당시의 대상어린이의 성별과 연령은 표 2와 같다.

표 2. 관찰대상 어린이

어 린 이	성별	연 령 대	관찰된 부정문 수
경	남	1 : 11～2 : 7	45
미	여	1 : 7～2 : 1	42
일	남	1 : 9～2 : 6	28
석	남	1 : 1～3 : 1	64
범	남	2 : 7～3 : 11	140
계			319

자료중 초기언어시기에 속하는 어린이 4명의 자료는 조 명한 (1982) 의 자료임을 밝혀둔다. 미, 경 어린이의 자료는 심리학을 전공한 부친이, 석 어린이는 심리학을 전공한 고모가, 일 어린이는 그의 어머니가 나날이 자녀들의 말을 녹음 및 기록하였다. 범 어린이의 자료는 후기 언어시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불규칙적이기는 하나 사흘에 한번 정도로, 그의 부모가 녹음과 기록을 통해서 가정사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였는데, 이 자료는 대상어린이의 수와 연령에 있어서 McNeill(1973)의 대상과 일치하므로, 일본 어린이의 부정사 획득과 비교될 수 있다.

이 자료중 경·미·일·석 네 어린이의 자료는 질적 분석이 가능한 한편, 범 어린이의 자료는 양적 분석도 가능하다.

Ⅳ. 자료의 분석방법

부정문에 속하는 예문만을 연구자가 뽑아서 개인별로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5명의

자료를 모아서 총체적 경향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집단분석을 꾀하였다. 집단분석에서는 명제의 부정형태별, 부정의 강도별, 부정사의 기능별로 언어자료를 분석 및 분류하였다. 그리고 자료분류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내용을 모르는 국어학 전공자에게 별도로 자료분류를 의뢰하였으며, 두 사람의 분류결과는 모두 일치하였다.

V. 자 료 분 석 결 과

언어자료는 어린이 각각의 언어산출역사를 추적하여, 어린이 개인별 부정사 획득을 질적 분석으로 밝혀보고, 다섯 어린이의 언어자료를 모아서 개인차를 통제한 객관적 준거를 얻기 위하여 양적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1. 개별적 언어분석결과

분석사례 1. (경 어린이)

경의 자료는 초기 언어산출은 모두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차근차근히 단계별 이행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의 산출맥락을 모두 기록해 주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경의 2어 언어산출은 1년 11개월에 시작되었다. 처음에 엄마를 다양한 문맥에서 산출하기 시작하여 곧 아빠, 부릉부릉, 애기야, 어브봐 등의 한 단어 문장을 두 달 사이에 산출하였다. 사물의 이름을 획득하자 이제는 획득한 두 단어를 붙여서 두 단어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아빠 멍멍」, 「아빠 쉬」,「엄마 어브봐」등이 그 예이다. 이때 엄마와 아빠를 첫단어로 시작하여 인지하고 있는 다른 단어를 다양하게 붙여서, 두 단어 문장을 만들었다. 2어문의 구성은 Braine의 주축문법에 들어맞는다. Braine(1976)에 따르면, 아동은 주축이 되는 명사에다가 다른 명사를 붙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두 단어 문장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2년이 가까와 지면서, 부정적 문맥에서 머리만 가로젓던 경이 분명히 '아니야'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관찰자는 이때, 경의 언어산출 중에 '아니야'의 빈도가 가장 많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직(20개월) '아니야'에 다른 낱말을 붙여서 산출하지는 않았다. 단지 누군가가 부를 때에는 「네」라고 응답하던 경이 호칭이 아닌 의문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으로서 「네」라고 응답하는데, 이때 전자의 「네」와 후자의 「네」는 명확히 억양의 차이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경이 「아니야」와 「네」를 상반 개념으로서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부정사 '아니다'를 경이 획득한 기존 구문구조인 주축문법에 대입하는 경우〈×+아니다〉를 가정할 수 있다. 〈×+아니다〉는 그 형식에 설명을 보충하는 구조인 〈×+아니다, Y〉로, 〈×+아니다, Y〉는 그의 가역적 구문구조인 〈Y, ×+아니다〉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X, Y는 ($x+x'$), ($y+y'$)를 각각 대입시켜, 〈($x+x'$)+아니다〉, 〈($x+x'$)+아니다, Y〉, 〈($x+x'$)+아니다, ($y+y'$)〉의 구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수식적 구문의 변화를 가정할 수는 있으나, 그 수식적 가정을 입증할 수 있는 언어자료가 흔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의 자료는 예외이다.

27개월에 들어선 경은 비로소 '아니야'를 주축어로 사용해서 〈×+아니야〉의 구조를 지닌

문장을 산출했다. '차 아니야'가 그 예이다. 〈X+아니야〉의 주축구조문은 곧 X대신에 $x+x'$ 라는 문장을 대입시켜서, 〈$(x+x')$+아니야〉 형식의 문장으로 이행되었다.

경 : '아이 추워 아니야'(차갑지 않아) (27)

P : '아빠 세살이야?'

경 : '아빠 세살 아니야' (27)

경 : '아찌 땅루 아니, [illegible]' (28)

(아저씨는 땅을 파는 [illegible])

경 : '애기 아퍼 아니야' [illegible]

(아가는 아프지 [illegible])

위에 든 예문들은 명백히 〈$(x+x')$+아니야〉 형식에 의해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9개월에 산출된 아래 문장은 이 형식에도 맞을 뿐만아니라 복문 형태의 부정구문으로 볼 수도 있다.

P : '이거 무서운 거야?'

경 : '아니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29)

그런데 경의 자료에서 최초의 복문구성문은 '나기야 신 신고 학교 가' '맛있는 거 줘'로서 30개월에 출현하였기 때문에 엄격히 부정 복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같다. 오히려 〈$(x+x')$+아니야〉에서 부정 복문으로 이행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로서 간주될 수 있었다.

부정복문의 최초 형태는 31개월에 산출한 '먹던 게 아니야' (31)이다. 이미 〈$(x+x')$+아니야〉 형식의 부정구문은 자연스러운 복문형식의 부정문을 산출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X+아니다〉 형식의 변형인 〈X+아니다, Y〉구조의 문장도 나타났다.

경 : '빠스 아니야, 칙칙 폭폭' (28) (버스가 아니고 기차야)

경 : '아찌 아니야, 아빠' (28)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야)

경 : '아니야, 콜라 아니야, 오렌지야' (29)

〈X+아니야, Y〉의 역구조인 〈Y, X+아니야〉도 나타난다.

경 : '복숭아야, 오렌지 아니야' (29)

이 형식에 더욱 더 익숙해져서 〈Y, X+아니야〉 중 X가 생략되어 〈아니다, Y〉의 형이 출현한다.

P : '경우네 집에 테레비 있어요?'

경 : '아니야, 라디오. 형집에 테레비 있어요' (30)

기존정보에 대한 설명을 줄이려는 이러한 경제현상은 한 사물의 의미를 참조하는 문장에서만 아니라, 이제는 P. '경우 어디 갔다 왔어?'라는 응답에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중 동작을 나타낸상황에서도 보인다.

'택시 안 타구, 빠스만' (30)

기존정보를 생략하는 경우에 이와같은 경제현상이 보여지나, X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X를 $x+x'$로 대입한 형태중 Y를 또한 $(y+y')$로 구체화시켜 〈$(x+x')$+아니야, $(y+y')$〉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는 큰 거 아니구, 쪼그만 거' (32)

이 구문의 구조는 복문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시기적으로도 〈($x+$

x') + Y) 구조의 복문산출이 이루어진 다음이어서, 경은 복문과 부정복문을 동시에 획득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은 28개월에 문맥상 거부기능의 부정사 '안'과 곧이어 '싫어'를 산출하였다.

'줘 바, 안 줘 바, 안 줘' (28)

'싫어' (30) '싫대' (30) (아기가 손을 뿌리치니까)

그리고 부정기능의 부정사 '안'을 4개월 후에 산출한다.

'선풍기 안 돌아가면 더워' (32)

억시 금지를 표현할 때에는 '말다'를 사용한다.

'가지 마세요' (30)

'애기야 먹지마' (30)

'말하지 마' (30)

'학교 가지 마세요. 야 (나) 하고 같이 놀아요. 아빠하고 야하고 같이 놀아요' (30)

'안 까불래, 화내지 마세요' (31)

'저 안에 들어가지 마. 야(나)하고 같이 놀아. ' (31)

'머리 감는데 오지 마세요. ' (32)

'아빠꺼에다 그리지 말고 야꺼에다 그리자. ' (33)

사물의 존재여부를 표현하는 가운데, 사물의 부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없다」는 경의 경우 상당히 후반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의 예문에서 부재에 대한 대단히 과학적이며, 완벽한 인지양상을 읽을 수 있다.

'포도가 시어서 맛이 없어' (32)

'바퀴가 하나두 없는데 걸어 가' (32)

'버스는 있는데 택시는 없다. ' (32)

(노크 소리에) '누구세요?'

(문을 열어 보았으나 아무도 없으니) '아무도 안 왔어' (30)

(아빠 호주머니를 뒤지니) P. '뭐 있어?'

'아무 것도 안 있어요' (없어요) (31)

왜냐하면, 경 어린이가 부재기능의 부정사 「없다」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재기능 부정사의 가역적 구조인 '아무 것도 안있다.' '아무 것도 안 오다'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 것' '아무'를 선별해서 사물과 인간을 구별하고 있다.

부정사는 그 문맥이 의미하는 기능이 다른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불가기능의 부정사 「못」은 30개월에서 출현한다.

「못해요」(30)

P. 애기 손잡고 가라. '아파서 못 잡아' (30)

P. 손 씻고 먹어, '아파서 못 씻어' (30)

이처럼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시켜 표현한다. 이러한 인과관계의 설정과 그의 상황표현은 점차 참조물간 인과관계가 한 문장 안에서 구체화되는데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애기는 못 두지. 이제는 그만 두어야겠어' (32) (바둑을 두다가)

'저쪽 다리는 신는데, 저쪽 다리는 못해.' (32)

'내가 못 꺼내. 무거운데 내가 어떻게 꺼내?' (33)

부정의문문의 출현은 의문문과 부정문이 발전된 후에 나타난다. 부정문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즈음, 29개월부터 의문문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30개월에는 「이게 뭐야요」「이게 뭐야」의 첫 '무엇'을 묻는 질문이 산출되더니 뒤이어 곧, 부정의문문이 나타났다.

'편지 왔나, 안 왔나?' (30)

이 예문은 부정문이면서, 부정부가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났다.

'앉으면 안 돼?' (31)

그리고 곧 wh-question과 부정사의 결합형태인 부정의문문이 나타났다.

'왜 사이다는 안 사왔어?' (31)

'야는 심심해서 어떻게 해. 왜 야는 안 데리고 가요?' (31)

'왜 할머니 안 오실까.' (32)

'왜 할머니가 야 집에 안 와? 응' (32)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산출 이전에 고개만 저어 부정적 의미를 몸짓으로 표현하던 것이 언어로 표현되면서, 부정사가 몇 가지 형태로 획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부정사는 아동이 획득한 기존 구문체계를 빌어서 구문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즉 두 단어 문장의 경우에 경은 주축문법구문에 맞추어 〈X+아니야〉 형태의 문장을 산출했다는 사실과 또한 의문문의 구문을 획득한 이후에 부정의문문의 구문형태가 나타난 사실로 보아서 기존구문의 구조가 부정문 산출에 기본 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구문구조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형식은, 곧 그 형식이 허용하는 한 다양한 변모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기본형식의 구성요소를 과감히 생략하여 기존구문의 틀을 깨뜨리는 구문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다. 〈X+아니야〉가 〈X+아니야, Y〉로, 〈X+아니야, Y〉가 또한 〈Y, X+아니야〉로 변모되다가, X가 기존정보인 경우에 언어 절약현상에 의해서 X가 생략된 채〈아니야, Y〉로 이행된 예가 본 가설을 입증해 준다.

세째로, 하나의 고개짓이던 부정기능의 의미표현은, 언어산출이 진전됨에 따라서, 거부, 부정, 부재, 불가 등의 의미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산출된다.

ㄱ. 부정의미기능 '아빠 이거 기차 아닌 것 같애' (33)

ㄴ. 부재의미기능 '포도가 시어서 맛이 없어' (32)

ㄷ. 거부의미기능 '이거는 보기 싫은데요. 이거는 안 보기 싫어.' (32)
(아빠가 옷을 차려 입은 걸 보고서)

ㄹ. 불가의미기능 '아파서 못 씻어' (30)

ㅁ. 금지의미기능 '애기야, 먹지마' (30)

분석사례 2(미 어린이)

미의 자료는 언어산출이 다른 어린이보다도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개인차를 보여준다. 언어산출의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은 단어산출이 빠를 뿐만 아니라, 벌써 초기 자료에서 다양한 구문의 문장이 표현되고 있듯이, 구문의 변이도 빠르다. 1년 7개월에 2어 문장을 산출하고

있는 미는 '엄마' 나 '아빠'의 호칭에다가, 이미 획득한 여러 단어들을 붙여서 쓰는 단조로운 주축문법구조의 문장만을 산출하지 않고, 「행위자+행위」「호격+행위」「호격+장소+행위」등 다양한 구조의 2어문장을 표현한다.

미의 자료에서 가장 처음 출현한 부정사로 거부 기능의 '안'과 부정기능의 '아니야'이다.

'안 줘' (20)

'아니야, 맞어.' (20)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1개월에 산출한 미의 세 문장을 통해서 그 세 어린이가 동일상황을 얼마나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내 꺼야, 아빠 안 줘'

'사과 안 줘'

'아빠 사과 안 줘' (21)

즉 가지고 있는 사과를 아빠에게 주지 않겠다는 똑같은 사실을 미는 세 문장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21개월에 들어서 의문문의 구조를 획득한 미는 부가의문문의 형태로 부정의문문을 묻는다.

'나가, 안 나가?' (21)

'맞어, 안 맞어?' (21)

'빼, 안 빼?' (21) '안 줘, 줘?' (21)

'넣어 놔, 안 너 놔?' (22)

'아 뜨거, 안 뜨거?' (22)

'닦아 줘, 안 닦아줘?' (23)

'엄마 피아노 쳐, 안 쳐?' (25)

'빨리 자, 안 자?' (25)

이때 〈X, $\bar{X}$〉형식의 부정부가의문문은 역으로 〈$\bar{X}$, X〉형식의 부가의문문을 산출할 수 있다.

23개월에 들어서 미는 '안', '없다', '말다'를 모두 표현하였으며, 문맥에 따라서 자유로이 어미 변화를 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부정의문문도 표현한다.

'나는 안 그래애?' (23)

'나 맛이 없다' (23)

'생선 주지 마, 김치 줘' (23)

'나 보지 말까?' (23)

'이 아줌마 보기 싫어' (23)

그뿐만 아니라, 미가 최초로 '왜'를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묻는 의문문을 이때 산출하자마자 부정사와 결합한 형태로서 '왜'를 사용한 부정의문문을 산출했다.

'엄마, 왜 오빠가 안 오지?' (23)

'오빠 옷이 왜 없어?' (25)

그리고 부정의미를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간접화법도 구성할 수 있다.

'나 안 데리고 가아 했어' (23)

미 어린이 자료의, 끝부분인 25개월에 이르러서, 미는 불가기능의 부정사 '못', '… 을 할 수

없다'를 산출하였다.

'못 먹어, 얘들아' (25) (아카시아 꽃을 따 먹는 아이들을 보고)

'없어요. 내가 꺼낼 수 없어요.' (25)

그리고 끝으로 부정가정문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25)

이처럼 인지적으로 단순한 구문의 형태를 빌어서 부정구문이 표현되고, 단순한 형태의 부정구문은 보다 복잡한 사유, 즉 인지적 전환조작에 의해서 부정의문이나 이중부정 또는 부정가정문 등으로 표출된다. 이와 같은 전환은 상당한 인지능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Clark와 Chase (1974)의 연구결과와 같이, 전환된 구문의 이해면에서도 반응시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감안해 보면, 구문을 변화시켜 산출하는 것은 상당히 인지적으로 발달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두 어린이의 언어자료는 앞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연구문제 I, II를 밝혀 주었다. 경의 자료는 연구문제 I, 〈주축부정사+단어〉형식문장의 변형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었으며, 미의 자료는 연구문제 II, 부정사의 분화과정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부정사의 분화시기에 대해서는 집단적 자료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을 살펴 보아야겠다.

2. 집단적 분석결과

(1) 부정사의 출현단계

부정사의 전반적인 출현은 다섯 어린이가 개인차를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출현순위에 있어서 일치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부정과 거부기능의 부정사가 가장 일찌기 획득되며 부재기능, 금지기능의 부정사가 동시에 나타나며 불가기능이 가장 늦게 출현하였다. 이러한 출현순위는 일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Ito, 1981 ; Clancy, 1982)과 일치한다. 일본아동은 부재에 해당하는 부정사 nai보다는 거절이나 거부의미에 해당하는 iya를 더 일찌기 획득한다고 한다. 부재부정사보다 부정부정사가 더 일찌기 획득된다는 사실은 부재를 돌미만의 어린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Piaget, 1954)과 상충하는 듯하다. 그러나 인지된 개념을 산출할 때에는 상황의 산출필요성에 입각해야한다는 화용론에 따르면 설명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정사의 출현단계를 살펴보면, 부정사는 출현이 시작되어, 3·4 개월 동안에 의미기능별로 분류되어 출현한다. 따라서 의미기능이 분화되는 시기를 전후로 나누어 단계 I·II로 명명하여, 부정사획득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절대부정문이 나타나고, 부정부정사(否定不定詞)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시기를 단계III으로 보았으며, 이중부정이 나타나며, 부정사의 획득이 완료되는 시기를 단계IV로 상정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류는 Bellugi의 단계구분에 따른 인지적 발달특성과 일치되는 데, 어린이의 개인차를 고려할 때 특정단계별 연령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단계별 특성비교는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부정과 거부기능의 부정사가 가장 일찌기 나타나고, 부재기능과 금지기능의 부정사가 동시에 출현하며, 불가기능이 뒤늦게 출현하였다. 이처럼 부정사는 3·4개월 사이를 두고, 의미기능별로 분류되어 출현한다. 따라서 의미기능이 분화되는 시기를 전후로 나누어 단계 I, II로 명명하여 부정사획득시기를 구분지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절대부정문이 나타나고 부정대명사(否定代名詞)의 혼용이 빚어지는 시기를 단계III으로, 그리고 이중부정문이 나타나며 부정사의 오류문이 현저히 감소되며 부정사의 획득이 완료되는 시기를 단계IV로 보았다.

표 3 . 부정사의 출현시기

단 계	기 능	부 정 사	출 현 연 령				
			경	미	일	석	범
단계 I	부 정	아니다	2 : 1	1 : 8			
		안	2 : 4	1 : 8	2 : 2	2 : 3	기획득
	거 부	싫다	2 : 6	1 : 10	2 : 3	2 : 1	
	부 재	없다		1 : 9	2 : 5	2 : 3	
단계 II	금 지	안되다			2 : 4	2 : 4	
		말다	2 : 6	1 : 11	2 : 6	2 : 9	2 : 8
	불 가	못	2 : 6			2 : 5	2 : 10
단계 III		절대…싫다					3 : 5
		절대…말다					3 : 5
		할 수 없다					3 : 6
단계 IV		안하면 안되다					3 : 10

범 어린이를 제외한 세 어린이는 단계 II에 머물러 있는데, 미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동일 연령대에 속한다. 범 어린이는 단계 IV에까지 도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단계 IV 즉 부정사의 획득완료시기는 3세 이후임을 알 수 있다.

(2) 부정사의 출현

1) 명제의 부정

부정은 하나의 전제된 사실 전체를 부정하거나, 사물의 속성 또는 행위자의 행동 등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전자는 명제의 전면적 부정이며, 후자는 부분적 부정에 속한다. 한국 성인의 언어를 분석한 바(Lee, 1970)에 따르면,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사로서는 '아니다'(않다)와 '안'이며, 이들이 명제를 부정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대변될 수 있다.

(ㄱ) 명제의 전체부정

표 4 . 명제의 전체부정

사 례	예 문
1	미 : 아니야, 맞어(1 : 8) 범 : 아니야, 상어야(2 : 7)
2	경 : 복숭아야, 오렌지 아니야(1 : 5) 범 : 기절한 게 죽은 게 아니지(3 : 5)

NP + 아니다

명제를 전체부정하는 형태는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하나는 독립된 부정사 No에 해당하는 '아니다'를 문장머리에 세우고, 내용상 전제사실을 수정하는 문장형태와, 명사구(NP) + 부정사(아니다)의 형태인데 사례 1은 전자에 해당하는 예문이고 사례 2는 후자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ㄴ) 명제의 부분부정

명제의 부분부정에는 행위나 목적, 또는 행위 자체의 부정 등을 내포하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부정사는 '안', '아니', '않다' 등이다.

본 자료로부터 찾아낸 예문은 다음과 같이 대부분이 '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정사 '안' + VP) 형태를 보여준다(표 3). 그리고 '아닌'의 예는 찾지 못했으나 '(하지) 않다'의 예는 표 4와 같이 범 어린이의 자료에서 (VP + 부정사 '않다')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표 5. 명제의 부분부정

부 정 사	예	문	횟 수
안	미 : 안 줘	(1 : 8)	18
	경 : 야 신 안 줘	(1 : 3)	14
	일 : 안 놀 아	(2 : 3)	17
	범 : 안 매려워	(2 : 7)	39
않다	범 : 꼬마기차는 서지 않아(2 : 8)		29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어린이들이 산출한 부정사 '안'의 사용 예문 88문장을 보면, 두 가지 경우 '안 고장났어(일 : 2 : 6)', '안 배아파(범 : 2 : 7)'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동작을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 앞에 '안'이 위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Bellugi의 형식(부정사+X)에 들어 맞는다. 더욱 더 흥미로운 일은, 예외로 생각했던 예문, '안 배아파'나 '안 고장났어'가 우리말의 문법상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될지라도, Bellugi의 공식에는 더욱 더 들어맞아, 이 어린이가 부정사 '안'을 산출한 인지적 책략이 범문화적인 어떤 것으로서 추론될 수 있는데, 이 논리적 추론은 부정사 산출의 인지적 기초가 문화를 뛰어넘는 보편적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정사의 강도표현

성인언어중에 전면적 부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문장으로는 '결코…… 하지 않는다'와 '절대… 하지 않는다'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은 절대부정의 표현에는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나, 이 어린이의 언어자료 중에는 단 두번의 실례가 있어서 그를 들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 절대부정문의 산출

문장의 종류	산 출 예 문
절대… 싫다	범 : 춤추는 거 데레비에서 나오는 거 나 절대 싫어 (3 : 5)
절대… 하지마	범 : 아까 먹은 거 절대 하지마 . 낼부터(3 : 5)

보기로 든 두 예문은 범 어린이가 3년 5개월에 두 번 다 산출한 문장인데 그의 언어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때 , 그 이전에 산출된 예가 없는 것으로 보아 , 이 시기 경에 절대부정문이 획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의미표지에 따른 부정사획득

McNeill 부부의 부정사 의미표지 구분에 따라서 우리언어의 부정사를 분류해 보면, 우리말에도 McNeill 의 네 분류, 즉 부재 , 부정 , 거부 , 금지의 의미표지에 해당하는 부정사가 있으며, 대부분의 부정사가 네 기능에 연결되지마는 '말다 '와 '못 '만은 그 어느 의미에 따른 기능 범주에도 부적절하므로, 연구자는 '말다 '와 '못 '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에 따라서 불가(不可)의 항목으로 명명해서 별도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5 개의 의미 기능에 따라 분류된 부정사는 표 3 과 같은데 사용빈도를 계산해 보면 , 다섯 기능 중에서 부정의미의 산출이 가장 많았다.

범 어린이는 다섯 의미기능의 부정어를 의미표지는 혼용해서 잘못 산출한 경우가 단 한번도 없는데 이는, 일본아동의 언어자료분석에서 밝혀졌던 의미기능별 부정사 혼용에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동일한 연령대에 속한 두 어린이의 부정사 산출에 있어서 기능별 혼용의 차이를 보이는 점은 한국언어의 부정사가 일본어보다 어린시기에 일찌기 획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ㄱ) 부재 (non-existence)

범 어린이는 문장의 말미에 '없다 '라는 부재의미기능의 부정사는 다양한 의미를 변화시켜 가며 사용해서 부정문을 자유로이 구사하고 있다. 사용되는 어미는 '…어 , 지 , 다 , 어졌어 , …고 , 다고 , 어서 ' 등 대부분의 어미를 변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 7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7 . 부재의미의 부정사 산출

어린이	출 현 예 문	산출빈도
경	포도가 시어서 맛이 없어(1 : 8)	3
미	아니야 , 없어 (1 : 9)	7
석	아가 바지 없어 (2 : 7)	12
일	아빠요 아가 없어 (2 : 5)	1
범	엄마 힘이 없어 ? (2 : 10)	21

(ㄴ) 거부(refusal)

우리말 중에서 성인들이 거부의미로 사용하는 부정사는 '싫다'인데, 3세 이전의 어린이도, 하나의 전제나 사물을 '싫다'라고 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음을 표8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네 어린이가 산출한 문장들은 모두(목적어+싫다)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 8 . 거부의미의 부정사 산출

어린이	산 출 예 문		빈도
경	아빠 까만 바지 입고 가세요. 이거는 보기 싫은데요	(1: 8)	2
미	이 아줌마 보기 싫어	(1:11)	1
석	시러 바	(2: 1)	5
일	약 싫어	(2: 3)	3
범	앙고빵 싫어	(2: 8)	3

(ㄷ) 부정

성인이 명제를 부정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부정사는 '안', '아니다', '않다'이며 이 부정사들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2세 미만 어린이의 언어자료 속에서도 부정의미가 일치되어 나타났다.

표 9 . 부정의미의 부정사 산출

어린이	산 출 예 산	
경	아이 추워 아니야	(1:3)
미	안 줘	(1:8)
석	오빠 안 와	(2:5)
일	종일 눈 안 아퍼	(2:5)

(ㄹ) 불(가)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상(事象)을 성인들은 두 가지형태의 부정사를 빌어서 표현한다. 하나는 '못'이라는 부정사를 행위 앞에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할)수 없다'라는 일련의 관용적 표현 방법이다.

전자는 이 언어자료에서 다소 늦게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9에서 보듯이 상당히 많은 사용 예를 보였다. 이 예문 중에는 '잘못 보여', '난 못 알아' 두 개의 오류문장이 보이는데, 이들이 오류문장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문장을 통해서 불가능이라는 의미기능을 어린이는 충분히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인언어가 '잘 안 보여', '난 몰라' 등으로, 산출규칙의 변용을 택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면 어린이는 고지식하게 법칙에 따라 산출한다. 이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조명한, 1982 : 이순형·유안진, 1982)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불가의미를 산출하는 후자의 방법에 해당하는 예문은 두 경우 뿐이나, 두 문장 모두 정확히 오류없이 산출되었다.

표 10. 불가의미의 부정문 산출

부정사	어린이		빈 도
못	경	아파서 못 씹어 (1 : 6)	3
	미	·	·
	석	할머니집에 못 가 (2 : 9)	7
	일	·	·
	범	엄마 지구 못 봤지?	10
(함)수 없다	범	여긴 앉을 수 없어 (3 : 6)	2

(ㅁ) 금 지

성인들이 금지된 사실을 알리거나 지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두 개의 부정법은 '말다'와 '안되다'이다. 전자는 동사나 명사 뒤에 '말다'의 어미변용이 온 형태이며, 후자는 부사절이 온 다음 문장의 말미에 '안되다'가 변화되어 사용되는 형태이다. '안되다'가 피동상태를 대표하고 있는 한편 '말다'는 주어진 동작과 관련된 발언자의 의지나 제어가능성을 가정하고 있다(이정민, 1977).

3세인 어린이도 표 11에서 보듯이 정확하게 금지의미의 부정문을 산출하고 있으며, 산출된 문장들은 위에 언급된 문장 형태에 정확히 들어 맞는다.

표 11. 금지의미의 부정문 산출

부정사	어린이	예 문	빈도
말다	경	가지 마세요 (2:6)	4
	미	나 가시 주지 마 (1:11)	4
	석	바우하고 싸우지 마? (2:6)	6
	일	우리 집에 오지 마 (2:9)	2
	범	뿔 그런 거 짤르지 마 (2:8)	13
안되다	경	앉으면 안 돼? (2:7)	1
	미	·	
	석	아가 안 돼	3
	일	이쪽 안 돼 (2:4)	1
	범	신발로 밟고 다니면 안 돼 (3:5)	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는 부정사 별로 의미가 다섯 가지로 다양하게 변화되며, 그에 따라서 산출규칙도 변화되는데 2세 어린이도 부정사의 의미기능별로 정확하게 부정사를 선별할 수 있으며 선택한 부정사에 알맞는 산출규칙을 사용해서 정확히 부정문을 산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2세 어린이가 다섯 가지 의미별 부정사를 문맥에 맞추어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아동에 관한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Slobin의 언어산출 보편성 법칙 5 (Slobin, 1979:P.110) (문법표지와 의미표지가 일치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없이 일찌기 획득된다)을 확인시켜 주었다.

4) 이중부정

부정문의 산출이 긍정문의 산출보다 인지적 복잡성이 더 요구되는 과제(Clark, H. & Clark, E., 1977 ; Clark, E., 1977)라고 할 때, 이중 부정은 부정문 산출보다 더 복잡한 과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중 부정은 부정문보다 훨씬 늦게 산출됨을 예상할 수 있다. Slobin도 이중부정의 출현은 단계 4에 가서나 보여진다고 하여 이중부정이 부정문 산출이 완료되는 시기에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중부정문은 두 문장 뿐이다. 그중에 경 어린이가 산출한 문장,'이거는 안 보기 싫어(1:8)'는 최초로 발견되는 이중부정문인데 이 문장은 아직 완성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은 과도기적 이중부정문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즉 그 단계에 들어선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X'의 규칙에다가 X를 '보기 싫어'라는 귀절을 첨가시킨 형태로서, 엄격한 규칙에 따라 산출한 오류문장이다. 보다 자연스럽고 무리가 없는 부정문은 후반자료에서 나타났다. 어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는 상황에서 범 어린이는 '물 안 주면 안돼? (3:10)'라고 물을 주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 문장을 표출하였다.

그런데 본 예문은 이중부정일 뿐만 아니라, 의문문으로서 이중부정의문문이다. 물론 영어산출에서는 긍정문보다 의문문의 산출이 더 어려운 인지과제라고 판단될 때 이중부정문보다는 이중부정의문문의 산출이 더 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나마 영어부정문의 획득에서 이중부정의문문의 실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인지적으로, 가장 산출하기 어려운 이중부정의문문의 산출이 이중부정문의 반복연습이 없었음에도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영어와는 달리 의문문에 필요한 인지적 조작이 간단한 언어구조에도 원인이 있을 뿐더러 우리말 구조상 문장의 말미에 어미를 변화시켜 의문문을 만드는 것이 Slobin이 제안한 어린이의 언어 산출규칙 A(Slobin, 1979. p. 108) (문장의 말미에 주의를 기울여라)에 들어 맞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부정사 사용의 확대

부정사는 단순부정물의 구조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부가의문문, 명령문, 그리고 가정문의 형태에도 사용된다. 그런데 다양한 문장구조 속에서 부정사를 산출한다는 것은 어린이에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부정사는 부정사가 지니는 고유한 의미기능과 문맥을 적절하게 연결시켜서 산출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부정문의 출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표 12에서와 같다. 세 어린이는 단순부정문, 부정부가의문문, 부정명령문 순서대로 부정문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일회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부정가정문이 뒤늦게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정가정문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요구한다고 보여진다.

흥미로운 사실은, 경의 단순부정문 획득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니야'라는 부정사를 산출하는 단계에서, 두 달 여만에 '목적어+아니야' 그리고 곧이어 '수여격+목적어+부정사+동사'의 보다 복잡한 문장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연령변수의 증가에 따라서 산출되는 문장구조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표 12. 부정사 사용의 확대

어린이	단순부정문 부정대명사·부정부사	부정부가의문문	부정명령문	부정wh의문문	부정가정문
경	아무도 안왔어 (1:6) 아니아 (1:1) 차 아니아 (1:3) 아 신 안줘 (1:4)	편지왔나· 안왔나 (1:6)	애기야, 먹지마 (1:6)	왜 야는 안데리고 가요? (1:7)	
미	안 줘 (1:8)	맞어, 안맞어? (1:9)	나 가시 주지 마 (1:11)	오빠 옷이 왜 없어? (2:1)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2:1)
석	안 줘 (2:3)		산이 밟지 마 (3:1)		
일	안 놀아 (2:2)	나있어 없어? (2:5)	가져 가지 마 (2:6)	왜 아직 해 안 떴어?	

(4) 문장 표현의 오류

본 연구에서 분석된 420개의 부정문중에서 성인언어 기준에 따라서 문법상 오류를 보이는 문장을 모두 모아서 그 오류내용을 살펴 보았더니, 오류내용을 크게 어순의 오류, 불가의미부정사 '못'의 사용오류와 부정부정사(否定否定詞)의 혼용으로 나뉜다. 오류내용에 따라서 산출규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어린이가 오류문장을 산출하는 이유중 하나는 어린이가 학습한 하나의 규칙을 언어산출할 때에 어느 곳에나 예외없이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인언어가 예외적으로 그 규칙을 변용시킨 곳에 그 규칙을 적용함으로 빚어진 과잉일반화에 따른 오류는 선행연구(조 명한, 1982: 이 순형·유 안진, 1982: de Villier & de Villier, 1978)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다.

이 어린이들도 과잉일반화에 의한 오류문을 표현하였다.

첫째는 부정문의 어순상 오류로서, 표 13-1에서 보듯이 예문은 모두 어순상 형태소 배열의 오류를 보였다. 그런데 이 오류 문장은 한결같이 부정사 '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보기 싫어, 있어요, 들어 와, 배 아파, 먹을래, 말해' 등의 술부가 왔는데, 이 사실은 초기 언어획득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초기에 어린이들은 주축이 되는 말에다가 단어 하나를 변화시켜서 문장을 만드는 규칙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Bellugi의 (부정사+X)의 규칙에 부합된다. 그런데 우리 문법에서 가능한 그 반대의 규칙(X+부정사)을 과잉일반화한 오류문이 표 13-2에서와 같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언어산출 책략이 보편적임(Slobin, 1979)을 의미한다.

표 13 — 1 어순의 오류

	예 문	
경	1) 이거는 안 보기 싫어	(1 : 3)
경	2) 아무 것도 안 있어요	(1 : 7)
경	3) 바람이 안 솔솔 불어와	(3 : 1)

표 13 — 2 어순의 오류

	예 문	
경	아이 추워 아니야	(1 : 3)

둘째는 불가의미기능의 부정사 '못'의 사용오류이다. 범 어린이는 부정사 '못'을 10개 예문(표 10)에서와 같이 정확하게 사용했으나 단 한 번(표 14) 사용오류를 보였다. 이 오류문의 경우는 '몰라' 나 '알지 못해' 등 성인들의 관용적표현이 오히려 원래 문법규칙에서 벗어난 경우인데 이 어린이는 문맥상 의미관계와 일치하는 불가의미의 부정사 '못'을 예외없이 사용한 까닭으로 빚어낸 오류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규칙을 과잉일반화하는 것은 어린이가 문장을 산출할 때 예외를 피하는 경향(Slobin의 조작규칙, C)이 있기 때문이다.

표 14. 부정사 '못'의 오용

오 류 내 용	예 문	규 칙
'못'의 예외 없는 사용	범 : 난 못 알아 (3:1) cf. 난 못 찾아 (3:1)	불가의미부정사 '못'의 사용

셋째는 의문사와 부정대명사(否定代名詞)를 과잉일반화하여 문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혼용한 오류이다. 구체적 오류내용을 보면(표 15), 석 어린이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부사인 '어디'를 부정문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곳에 사용하였다. 범 어린이가 잘못 산출한 세 개의 문장은 사물과 사람에 해당하는 부정대명사를 제대로 사용하였지마는 (문장 1, 2), 부정과 긍정의 문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결국 사람과 사물을 지칭하는 부정대명사를 과잉일반화하여 사용한 오류이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살펴 보면, 3) 문장은 1), 2) 문장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사실, 즉 부정문에는 부정대명사를 사용해야 함을 알고 문장의 종류에 따라 부정대명사를 적절히 사용했으나, 이전에는 성

공적으로 고려했던 사실, 즉 사물과 사물은 달리 지칭하는 말이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람을 지칭하는 부정대명사로 과잉일반화하는 오류를 빚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은 이미 부정사 획득에서 설명된 바(Slobin, 1971)인데, 문장의 종류별로 사물과 사람에 따라 적절한 부정대명사(不定代名詞)를 선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상당한 수준의 인지적 발달을 요구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어린이가 3회에 걸쳐서 부정대명사를 잘못 사용한 것도, 그때마다 구체적인 오류내용은 다르지마는 전체적으로, 어린이가 부정대명사를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상당한 정도의 인지적 부하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빚어진 오류라고 볼 수 있다.

표 15 부정대명사의 혼용

예 문	규 칙
1) 석 : 볼펜 어디 없다 (2:5) 2) 범 : 여기는 아무것도 다 있어 (3:5) 3) 범 : 아래층엔 누구든지 안 잤잖아 (3:8) 4) 범 : 엄마는 아무도 안 들리지? (3:9)	• 장소를 나타낸 부사를 문장에 관계없이 일반화 • 사물과 사물을 구분한 부정대명사를 문장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화 • 문장의 종류는 구분했으나, 사물과 사람을 구별함이 없이 일반화

V.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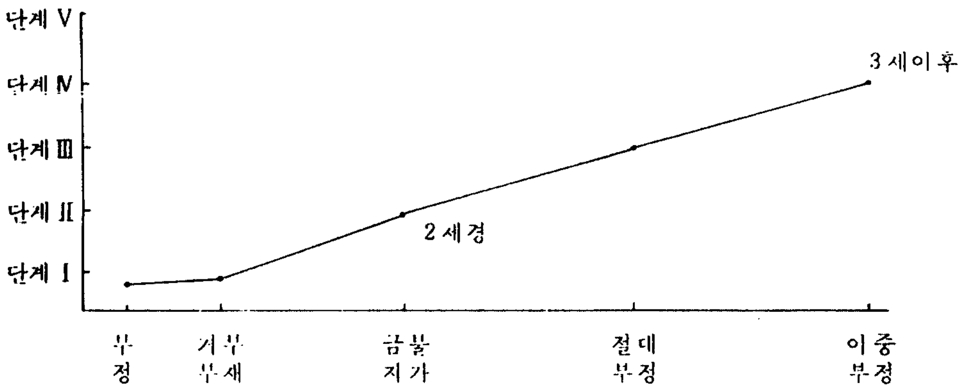
한국어가 지니는 고유성, 즉 의미기능별로 언어가 분포되어 있는 점이 아동의 언어와 인지관계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부정사 획득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밝히지 못한 연구문제 4개를 중심으로, 우리말 언어자료를 종적으로 또한 횡적으로 비교하였다. 언어자료의 표집대상은 한국의 서울에 거주하는 중류가정에 속하는 어린이 4명으로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산출한 말 가운데 부정문 420문만을 뽑아서 분석하여, 3세 전후 어린이의 부정사획득과정을 통해서 부정사의 획득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한국의 어린이들은 주축문법 구조에다가 부정사를 대입시킨 문장구조〈×+아니다〉를 기본틀로 사용하여 〈×+아니다〉, 〈(x+x')+아니다〉, 〈×+아니다, Y〉, 〈×+아니다,(y+y')〉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부정문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경 어린이의 자료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또 어린이들은 초기에는 부정사를 보다 단순한 구조의 부정평상문에 사용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문문, 명령문의 구문을 획득하면, 다시 이 구조에 부정사를 대입하여 부정의문문, 그리고 부정부가의문문, 부정가정문의 형태로 구조가 변화 및 확대되어 나간다. 따라서 어린이의 부정사 산출을 설명해 주는 인지적 부하량 가설은 부정사의 단어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장구조의 차원에서도 인지적 복잡성이 작은 데서 큰 수준으로 확장되어 나감을 알 수 있다.

(2) 어린이들은 그 중의 부정사는, 명제의 부정범위별, 명제의 부정강도별, 그리고 부정사의 의미기능별로 2세 이전에 분화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아동에 관한 선행연구(McNeill, 1968)와 비교해 볼 때 한국어린이의 부정사 출현이 더욱 이르며, 오용빈도도 낮으므로, 한국언어가 지니는 언어구조가 부정사와 의미기능이 일치하는 언어구조적 요인과 상통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로 간주되며, 이 사실은 Slobin의 가설(언어산출 보편성법칙 : 5)을 입증해 주었다.

(3) 부정사의 출현은 Bellugi의 분석과 유사하게 인지적 발달양에 따라서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단계 I 에서는 부정사가 의미기능별로 부정, 거부, 부재의 부정사가 출현되며, 단계 II 에서는 의미기능상 금지, 불가능 부정사가 출현하며, 단계 III은 절대부정사가 나타나며, 부정대명사의 오용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단계 IV는 이중부정문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부정사 획득이 완료되는 시기이다.

대상어린이중 세 어린이가 단계 II에 머물며, 동일 단계에서 세 어린이의 연령차이는 1/2년이 된 정도로 개인차를 보이기마는 대략 2세 이전에 단계 II에 도달한다고 판단된다. 범 어린이는 단계 IV에 이르렀다. 이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부정사 획득은 3세이후에 완료되는 것 같다.



(4) 또한 어린이가 표현한 오류문장을 분석한 결과 오류는 어린이가 학습한 규칙을 예외없이 과잉일반화한 연유로 나타났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오류내용은 1) 어순, 즉 문법형태소 배열의 오류, 2) 불가 의미부정사의 오용, 3) 부정대명사의 오용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오류문의 산출규칙이 다음과 같이 판단되어 밝혀 둔다.

1) 은 부정사가 문장의 앞에 온다는 산출규칙에 따른 결과로서 선행연구(Klima & Bellugi, 1966; Bloom, 1970)와 일치한다. 2) 는 문장의 의미표지 규칙에 따른 결과(이순형 · 유안진, 1982)이다.

이와 같이 부정대명사를 문장의 종류와 사물과 사람을 구분하여 변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인지적 능력이 요구되는데 범 어린이의 인지발달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까닭에 빚어진 오류로 판단된다.

또한 법 어린이의 부정사 사용에 오류가 별로 없었으나 이 항목에는 산출한 문장 모두가 오류문인 것으로 보아서 부정문의 부정대명사 사용이 부정문 획득의 완료과제로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말 자료를 가지고 부정문을 분석한 첫 시도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의 부정사는 영어와 달리 의미표지별로, 문법표지가 다양하므로, 영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와 한국어린이의 부정사 획득을 비교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되지만, 부정사 자체가 지니는 인지적 복잡성과 연령별 부정사 획득을 비교할 때 Bellugi의 단계이론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간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언어권에 있는 일본어와 비교할 수 있겠다.

한국어의 부정사는 일본어의 부정사가 의미표지별로 분화된 것보다 더 분화되어 있는데, 한국어린이가 일본 어린이보다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부정사를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Slobin의 언어산출 가설(의미표지와 문법표지가 일대일로 연결되는 언어일수록 어린이의 언어획득은 더 빠를 것이다)를 입증해 주었다.

이와 같은 비교결과는 네 어린이가 동일한 순서로 문법적 형태소를 출현하게 하여, 부정사가 보편적 규칙에 따라서 획득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표3에서 보았듯이 개인에 따라서 출현월령의 차이가 크므로 어린이의 월령에 따라서 부정사 획득을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한국어린이는 3세 이전에 단계 III까지 부정사를 획득하여, 대부분의 부정사를 획득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이순형·유안진,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에 관한 연구－언어학습책략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제 7권, 1982, 51-68.

이정민, 부정명령의 분석·어학연구, 13-2, 1977, 105-114.

조명한, 한국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 책략모형.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Bellugi, U. The acquisition of neg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67.

Bellugi, U. Smplification in children's language. In R. Huxley & E. Ingram (Eds.), *Methods and models in language acquisition* N.Y. : Academic Press, 1971, 95-117.

Bloom, L. *Language development : form and function in emerging gramars*,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Braine, M.D.S. Children's first word combin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976, *41* (Serial No. 164).

Clancy, P. Acquisition of Japanese. Unpublished paper, 1982.

Clark, E. *First language acqusition.* London : Paul Elerk LTD., 1977.

Clark, H., & Chase, W.G.Perceptual coding strategies in the formation and verification of descriptions. *Memory and Cognition*, 1974, 2, 101-

Clark, H., & Clark, E. *Psychology and language.* N.Y.: Harcout Brace Jovanovich, 1977.

de Villiers & de Villiers, *Language acguisition.*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Fujiwara, Y. *Yoonji no Gengo Hyoogen Nooryoku notlattatsu.* Hiroshima : Bunka Hyooron Publishing Co., 1977.

Greenfield, P.M. & Smith, J.H. *The structure of communication in early language development* N.Y.: Academic Press 1976.

Greenfield, P.M. & Znkow, P.G. Why do children say what they say when they say it?: an experimental approach to the psychogenesis of presuposition. In Nelson,K.(ed.) *Children's Language.* N.Y.: Gardner Press, Inc., 1978.

Ito, K. Two aspects of negation. In P.S. Dale and D. Ingram(Eds.), *Child language: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Boltimore : University Park Press, 1981.

Klima, E.S. & Bellugi, U. Syntactic regularities in the speech of children In J.Lyons & R.Wales(Eds.), *Psycholinguistics papers : the proceedings of the* 1966 *Edinburgh Conference.* Edinburgh :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66, 183-208.

Lee,H.R. On negation in Korea. 어학연구, 6-2, 1970, 33-59.

McNeill & McNeill, What does a child mean what he says No. In C.A. Ferguson and D.I.Slobin(Eds.),*Studies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N.Y. : Holt, Rinehart, and Winoton, 1973.

Piaget, J. *The Construction of reality in the Child.* N.Y. : Basic Book,1954

Slobin, D.I. *The ontogenesis of grammar* : A theoretical symposium. N.Y.: Academic Press, 1971.

Slobin, D.I. *Psycholinguistics*(2nd). Glenview: Scott, 1979.